

호남, 절반이 이미 선택 ... 투표 열풍 서울로 부나

사전투표 36.93% 폭발적 증가 ... 전남 51.4% 전국 1위
민중 "호남 결집 수도권 표심에 영향"·국힘 "정권교체 열망 표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역풍으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는 정권교체 열망이 사전 투표율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에 양강 후보의 집전 양상이라는 점에서 최종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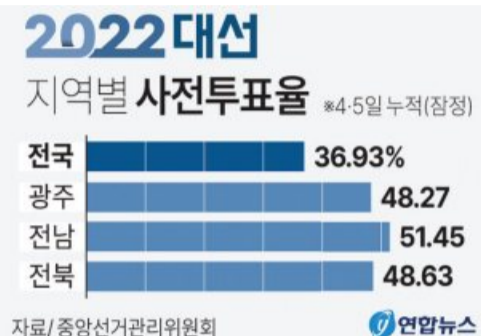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5일 이틀간 실시된 이번 사전투표의 전국 투표율은 36.93%로 집계됐다.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특히 2017년 직전 대선 사전투표율(26.06%)과 비교하면 약 10.87% 포인트 높은 결과다. 이에 최종 투표율도 5년 전 기록(77.2%)을 돌파,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5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가 각각 48.6%, 4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33.7%, 제주 33.8%, 대구 33.9% 순이었다.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 19에 대한 우려로 선거 당일보다 덜 몰리는 사전투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하며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집전 구도라는 점도 사전 투표율을 높였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가운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높은 투표율이 자기 쪽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층 총결집의 결과라며 승기를 잡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역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정치의지를 확인했다"고 반기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지자가 사전투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경향적으로 확인되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의식 확산시켜 오히려 결집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풍'을 일으켰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을 일으켰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의 역풍이 부는 상황"이라며 "안대 표 지지층이 반발하고, 중도층은 반감을 갖고, 이후 보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 상승률(10.87% 포인트)에 비해 5% 포인트 높았다는 점은 이재명 후보의 표심 결집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또 호남 민심 결집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열망이 사전투표 열기로 표출됐다고 분석한다. 윤석열 후보는 SNS에서 "정권교체를 향한 열망을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고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확대 선대본부 회의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우리가 이겨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에선 호남지역 사전투표율 급등에 대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를 원하는 호남 민심이 결집한 결과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선거 당일 영남 및 수도권 보수층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가운데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민심이 결국 대선 결과를 좌우하진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사전 투표율이 전국 평균치와 근접하거나 낮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확고한 지지 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여성 유권자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길고 긴 사전투표 행렬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설치된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정치권 '대혼란'

초박빙 결과 땀 불복 '빌미' 우려
선관위 방비대책 마련해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일 이뤄진 '코로나 확진자 투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이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초박빙 표 차이가 나올 경우 자칫 부정선거 논란이나 불복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5일 치러진 확진자 사전투표에서는 전국 곳곳 투표소에서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쏟아졌고,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불량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

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장과 백혜련·이혜식·양기대 의원 등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층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선관위원장 이하 선관위원들은 이 사태에 꼭 책임을 지기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선관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연유를 따져 물을 것이며 우선 9일에 진행되는 본투표 전까지

신속하게 납득할 만한 보완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 투표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7일 오전 1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형 산불 피해 울진·삼척 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대피 주민들을 만난 뒤 오후 2시50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만난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

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의 산불 피해 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식당·카페 밤 11시까지 영업시간 연장	▶2면
프로야구 시범경기 앞두고 코로나 몸살	▶18면
세계 문화도시를 가다 - 오스트리아 빈	▶22면

생명사랑운동기념
Land of Life, Best Jeonnam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2022. 1. 21. ~ 2023. 1. 20.

신고장소 도 내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도외·국외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신고방법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서식 다운로드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 부서자료실 → 여순사건지원단

문의처 및 접수처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061-286-7881~7883
- 시군 여순사건담당·읍면동 민원실
- ※ 우편접수처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전라남도
JeollaNamdo